雇傭職業能力開發硏究
第17卷(2), 2014. 8, pp. 81~117
ⓒ 韓國職業能力開發院

중다대응분석(MCA)을 통한 고3 시기 불평등의 다차원 맵핑(Mapping)

: 사회위계와 학교유형, 학업, 사회자본, 문화자본, 의식관의 불평등 지형도*

이 왕 원**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4차(2007) 자료를 활용하여 고3 학생들의 삶의 단면들을 교육계층화와 불평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다수의 변수들을 몇 개의 축을 중심으로 요약·시각화하는 중다대응분석(MCA)를 활용하였다. 이는 위계화 된 대학 학벌을 중심으로 사회·직업적 보상이 평가되는 한국사회에서 대입을 준비하는 고3 시기를 다면적(多面的)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한국사회의 고3 시기는 학생의 개인적 능력과 노력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자원과 전략이 '대입'이라는 묵시적 목표를 향해 집중되는 시기로, 사회구조적 불평등은 학생들의 교육현장과 삶에서 총체적으로 표출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출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고3 시기 삶의 단면들을 학교유형, 가정, 학업, 사회, 문화, 의식관의 다섯 차원에서 살펴봄에 목적을 둔다. 각 차원의 분석결과들은 사회구조적 위계가 학생들의 삶의 단면들 전반에서 중첩·상응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양상을 보여준다.

– 주제어: 고3, 수능, 고교유형, 교육계층화, 중다대응분석(MCA)

투고일: 2014년 03월 13일, 심사일: 04월 01일, 게재확정일: 05월 29일
* 본 논문을 심사해주신 익명의 세 심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sanha25c@korea.ac.kr)

Ⅰ. 서 론

한국사회에서 고3 시기는 스무 해 남짓 살아온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받는 시기로 하나의 사회적 의례(ritual)로서 해석될 수 있다. 고3 시기라는 1년의 기간은 학생의 노력과 집중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해온 부모-가정-학생의 약 20년의 집약·누적된 경제, 문화, 사회적 자본과 전략이 대학이라는 학력자본으로 전환·공인되는 시기이다. 이는 대입을 준비하는 1년이란 기간은 이전의 여느 1년과 등가(等價)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님을 함의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대학 학력과 학벌은 공인된 상징자본으로 향후 직업 지위와 소득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임을 여러 선행연구가 보고하고 있는바(방하남·김기헌, 2001; 남춘호, 2003; 김경근, 2005; 손준종, 2004; 2006; 백병부·김경근, 2007; 김문조, 2008), 대입을 결정짓는 고3 시기는 각 개인의 삶 전체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애 주기(life-course)관점에서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학교유형, 학업성취, 가정의 지원, 여가, 친구관계, 인생관이 중첩되는 '고3의 생활'은 이후 성년기 삶의 궤적 전반에서 복합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고3 시기를 여느 다른 시간대와 같이 고려한다면, 한 개인의 삶에서 가지는 고3 시기의 삶의 복합-다중적인 영향력을 간과하게 된다.

본 연구자는 한국사회에서 학생들의 고3 시기는 이후 각 개인의 인생을 결정하는 '시간적 독립변인'(time-based independent variable)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고3이라는 1년의 '시기' 그 자체가 독립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대입을 결정짓는 내신성적 및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위계화된 평가의 낙인이 찍히는 고3 시기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복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물론 대입을 전후로 전(前) 차원에서는 고3 시기의 성적과 수능을 종속변수로 학생과 부모-가정의 효과를 살펴본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후(後) 차원에서는 여러 사회조사에서 개인의 대학정보를 조사하기 어려운 연유로 수능점수를 대학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고려, 이후 성취에 대해 독립변수화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전자의 연구들은 부모-가정의 자원이 수능과 대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후자의 연구들도 학벌의 대리지

표로서 수능점수가 이후 대입, 직업지위 및 경제-사회적 성취와 높은 정적상관 및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구인회, 2003; 김경근, 2005; 김두환・김문조, 2005; 김경근・변수용, 2006; 백병부・김경근, 2007; 김두환, 2008; 변수용・황여정・김경근, 2012).

그러나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한 가지 약점을 지닌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기존의 연구들이 관심 변수 간의 관계만을 설명(explain)함에 우선적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정의 자원이 수능점수와 영향이 있는지, 만약 영향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함에 그 우선적 목적을 둘 때, 관심 독립변수와 수능점수 이외의 여러 변수들은 통제(control)차원에서 부가적으로 고려된다. 이는 여러 변인들의 복합적 영향력과 관계를 단차원적으로 고정시켜버리는 지나친 간명화의 우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구조방정식이나 경로모형에서는 변인들의 효과 관계나 양태를 살펴볼 수 있지만, 이는 소수 주요변인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듯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고3 시기는 부모-학교-학생이라는 삼위(三位)의 사회 구조수준의 자원과 사회 과정수준 전략이 복합・중층적으로 연계 혹은 일체되는 계층상승을 위한 입체전(立體戰)의 결정판이다. 따라서 주요 변수에 대한 설명뿐만 아닌 관련 변수들의 복잡한 관계나 양태의 조망을 제공하는 연구주제 및 방법론은 한국사회의 고3 시기를 면밀하게, 또는 관련 현상에 대한 통찰 및 연구적 상상력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연구가치가 있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고3 시기 삶의 단면들과 관계성을 중다대응분석(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이하 MCA)를 활용하여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중다대응분석은 기본적으로 대응일치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에 그 토대를 두고 있는 분석방법으로, 이는 분할표(contingency table)자료의 행과 열을 저차원의 공간상에 지도로 표시하여 그들의 대응관계를 탐구하려는 탐색적 자료 분석 방법이다. 특히 중다대응분석에서는 분석대상이 되는 모든 변수들로 각각의 분할표를 작성하고, 이를 행과 열에 재배치하여 하나의 큰 표를 작성하게 된다. 이를 버트 표(Burt table)이라고 하며 이 표를 통하여 복잡한 자료를 간단하게 한 두 개의 축(axis) 상에 시각화하여 표현하게 된다(이명진, 1997; 김성호, 2000; Abdi & Valentin, 2007; 노형진, 2008; 2011).

선행연구들이 관심 변수에 대한 설명(explain)을 주목적으로 삼았다면, 본 연구에서 활용할 중다대응분석(MCA)의 방법론적 목적은 복잡한 자료를 요약(summarize)하고, 평이하게(simplify) 한다는 점에서 기술적(descriptive) 부분에 초점을 둔다. 즉 중다

대응분석은 다차원의 변수들의 복잡한 관계를 소수 몇 개의 축을 기준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특히 본 연구의 적용차원에서 중다대응분석은 복잡한 한국사회 고3 시기의 삶의 단면들, 즉 사회적 위계와 고교유형, 그리고 학생들의 실천의 분포 간 관계를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소결하면, 본 연구는 여러 선행연구가 지목해왔던 교육격차·불평등의 논의에서 부모-가정 자원격차, 학교 유형, 성적과 사교육, 여가, 인생-미래관, 기대교육 수준 등 복잡다단한 관계들을 중다대응분석을 통해 시각화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 고3 시기 교육계층화와 불평등구조를 전반적으로 조망한다.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배포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이하 KEEP)의 표본 4차년도(2007년)를 활용, 일반고·실업고·특목고에 재학 중인 고교 3학년 2,971명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정, 학업, 여가, 친구관계, 의식관 차원의 많은 변수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이를 중다대응분석을 통해 한 면에 요약·평이화하여 보여주게 된다. 하지만 본 분석방법은 다수의 변수를 한 면에 시각화함에 따라 표현이 다소 복잡하게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교육계층화 논의에서 부적 효과가 보고되고 있는 고교유형의 선별 효과 및 특성(Coleman et al, 1966; Jencks & Philips, 1998; 오정란, 2007; 김성식, 2009; 박소영·민병철, 2009; 김경년, 2011; 변수용·황여정·김경근, 2012; 김준엽·김경희·한송이, 2013)을 고려하여, 고교유형을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와 불평등을 범주화하는 분석적 해석도구로 활용한다. 이는 약 70개의 점(plot)이 산포되는 MCA 결과 도표를 일반고와 실업고, 특목고를 중심으로 변인들의 관계도를 보다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Ⅱ. 이론적 논의

1.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와 구조적 불평등

전후 과거의 전통적 질서를 상실한 '평등주의'적 한국사회에서 평준화 교육은 국가와

사회차원에서는 산업화의 인력자원 보충이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개인차원에서는 사회이동의 핵심 기제로써, 업적주의를 지향, 계층 간 간극을 메울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인적자본 확충을 통해 국가 및 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기능적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김경근, 2005; 이건만, 2007). 즉 산업화시대, 사회 전체의 발전 속에서 비록 차등적이지만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었던' 한국사회에서는 국민 대부분이 상승 사회이동을 할 수 있었다는 열망이 있었고 이는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흐름과 동조하며 교육은 '위대한 평등장치' 순기능을 다할 수 있었다(백병부・김경근, 2007). 이는 Blau와 Duncan(1967)이 설명한 것처럼 교육기회의 확대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아닌 개인의 능력으로 결정된다는 것으로, 교육이 업적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 산업론의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김두환, 2008).

그러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유연적 질서의 확대, 구체적으로 IMF와 금융위기라는 일련의 사건 이후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대한 환상은 깨지게 되었다. 또한 발전도상에서 축적된 자본은 한국 특유의 가족중심주의와 상호작용하며 부적인 사회적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 즉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식과 불안은 '제한된 자원'을 경쟁을 통해 얻어야 한다는 의식으로 연계되며, 지난 발전 속에서 축적된 차등적 자원과 가족주의는 자녀의 계급/계층의 상승 및 유지를 지원하는 물질적・정신적 지원군이 된다. 가령 최근 자녀의 대입성공에 있어서 유행하고 있는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력" 문구는 이를 잘 대변한다.

이상에서 살필 수 있는 '교육'의 의미변화는 교육사회학적 관점에서 교육계층화라는 논점으로 정리된다. 교육계층화 관점의 사상적 기저는 갈등론으로 이는 교육이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유지・재생산한다고 본다. 즉 교육이 개인의 인적속성에 기반을 두어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개인의 외적 속성인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영향 및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Coleman(1988, 1997)과 Bourdieu(1984, 1996)는 개인 외적인 속성이 교육의 영역에 어떻게 침투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고찰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먼저 Bourdieu는 아비투스(habitus)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인 부모와 가정의 경제자본이 무형의 생활양식과 상징적 경계로의 문화・사회자본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백병부・김경근, 2007; 김두환, 2008). 그에 따르면 교육체계 및 교육내용은 지배계급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사회화 과정은 지배계급의 문화를 학생들에게 무의식/의식적으로 주입, 결국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더

나은 성취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다. 가정은 "다양한 형태로 세대 간 세습되는 자본이 축적되는 중요한 저장소들 중에 하나"로서, 학생에게 사회경제적 근원이 되는 가정은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조력하는 기능적 조직으로 불평등의 근원이 된다(김두환, 2008).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교육영역이 사회구조적으로는 불평등을 재생산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역할을 누가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며, 또한 개인적 수준에서는 불평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의 독특한 개념 '아비투스'와 '문화자본'을 통해 구체적 메커니즘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교육에 개입하는 개인 외적 요소라는 시각에서 또한 Coleman의 논의를 살필 수 있다. Coleman은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끼치는 가정배경을 경제자본, 인간 자본, 사회자본으로 구분하고 특히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주목하였다. 그는 교육성취 차이를 만들어내는 변수는 학교보다는 가정배경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면서, 이후 연구들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학업성취의 주요결정요인으로 삼게 하였다. 특히 의미 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s)는 개인의 지위성취획득 과정에서 교육의 역할을 설명하는 Wisconsin 지위획득모형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

Wisconsin 지위획득모형에서는 '의미 있는 타자'와 그들이 지니는 학생들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교육과 직업에 대한 포부' 변수를 담고 있다. 이는 Blau와 Duncan(1967)의 경로모형에 인지적 변인과 사회·심리적 변인과정을 추가한 것으로서,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사회화과정 모형"으로 연구의 외연을 확장한다. 소결하면, 기존 Blau와 Duncan의 연구가 단순히 사회경제적 배경변수가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면, Wisnconsin 모형은 의미 있는 타자와 포부라는 구체적 사회화 기제를 고려함으로써 부모-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Sewell & Shah, 1967; Sewell & Haller & Portes, 1969; Sewell & Hauser, 1980; 김두환, 2008; 심경섭·설동훈, 2010; 차종천·오병돈, 2012).

김두환(2008)은 이상의 Bourdieu와 Coleman이 '가족의 개입'이라는 동일한 현상을 서로 대립되는 관점으로 보고 있음을 지적한다. 하나는 계층의 세대 간 상향이동 또는 그 유지를 조력하고 있는 미시사회구조로서 그 자체의 가치를 주목하고 있음과 또 하나는 그러한 미시적 사회구조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과 부모세대의 사회구조적 지위에 따라 가용한 자원의 양이 다음 세대를 제약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다면, “사회구조적 배경이 교육이 어떻게 개입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가령 Wisconsin 모형에서는 의미 있는 타자, 그리고 포부, 교육 열망이 교육적 성취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Sewell & Shah, 1967; Sewell & Haller & Portes, 1969; Sewell & Hauser, 1980; 심경섭・설동훈, 2010; 차종천・오병돈, 2012). 또한, Coleman의 논의를 토대로 한 Kim & Schneider(2005)와 김두환(2008)의 연구는 부모와 자녀 사이 기대학력의 일치를 ‘관계적 동조’로 개념적 정의하며 이러한 ‘기대’가 사회구조적 변인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결과적으론 학업에서 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론적 합의와는 달리 Bourdieu의 주장은 분석과 적용에서는 논의가 분분하다. 이는 국가가 처한 상황별로 그 효과가 상이하다는 것으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전통적 고급-지위 문화가 존재하는 유럽권 국가에서는 문화자본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고급-지위문화가 대중문화와의 이질성을 강조하는 유니보어(univore)의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다(Bourdieu, 1984; 1996; 최샛별・이명진, 2012). 하지만 여러 선행연구는 기존 전통문화의 부재 및 이질적 시장의 존재, 지위상황의 다양성이 국가마다 다름을 근거 고급-대중의 위계/대립되는 것만이 문화자본이 아니며, ‘문화적 폭넓음’ 그 자체가 문화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옴니보어(omnivore)적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Bryson, 1996; Erikson, 1996; Peterson & Simkus, 1992).

한국사회에서 문화자본의 효과에 대해서는 더욱 의견이 분분한데, 일반적으로 학생의 유년시절 전반에 대한 문화자본의 효과는 정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특수적 상황, 즉 수능이라는 표준화된 시험을 준비하는 고교 시기에 한해서는 그 효과가 없거나, 혹은 부적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가령 변수용과 김경근(2007) 자녀의 고급문화 활동은 학업성취에 대체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만, 일정수준에서는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나타냄을 보고하면서 문화자본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과목에 대한 흥미의 폭을 창의융합인재의 잠재적 능력으로 개념적 정의한 후, 흥미다양성과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김두환・김문조・이왕원(2013)의 연구에서도 한국의 수직-위계적 교육현실은 수평성과 넓음을 강조하는 문화적 폭과는 큰 관련이 없음을, 더 나아가 문화적 폭을 담지하는 융합적 능력의 상실이 성적의 조건임을 밝힌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계층화의 논의를 토대로 부모・가정의

사회구조적 배경변수들과 고3 학생의 여러 단면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관계성과 상동성(homology)을 중다대응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2. 교육계층화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국의 '고3' 시기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고3 시기는 대학 입학과 직,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학벌중심으로 보상의 차별적 위계가 형성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고교교육은 그 명시적 목표는 아니더라도, 실제 묵시-최종적 목표는 '명문-일류 대학합격'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3 시기는 학생의 노력과 더불어 그 이면(裏面)의 부모-가정-학생의 약 20년의 집약·누적된 경제, 문화, 사회적 자본과 사교육과 같은 전략이 대학이라는 학력자본으로 전환·공인되는 시기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대학 학력·학벌은 공인된 상징자본으로 향후 직업 지위와 소득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임을 여러 선행연구들이 보고하고 있는바, 고3 시기의 중요성은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교육계층화를 이해하는데 무시될 수 없다(방하남·김기헌, 2001; 남춘호, 2003; 김경근, 2005; 손준종, 2004; 2006; 김경근·변수용, 2006; 백병부·김경근, 2007; 김문조, 2008).

이 시기, 즉 고3은 앞에서 살펴본 교육계층화의 관점과 밀접히 연계된다. 기실 한국사회에서 학생 개인의 노력, 실력과 더불어, 부모의 경제, 문화, 사회자본이 총력전의 결실은 바로 '(명문)대입'이기 때문이다. 대입을 준비하는 시간적 과정은 고교, 혹은 중학교까지도 확장될 수도 있지만, 이 시기들 모두 대입을 준비하는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고3 시기'는 교육계층화의 과정에서 핵심 과정이자 최종 단계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자본의 관점에서 고3 시기의 교육계층화에 대해 논의해본다면, 먼저 경제적 자본은 한국사회 고3 시기에서 사회, 문화자본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사교육이라는 가정의 직접적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교육계층화에 기저(基底)를 형성한다. 남기곤(2007)에 의하면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격차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사교육비 예산이 교육부 예산을 능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계급 간 상대적 위험회피라는 Goldthorpe의 이론을 토대로 한 김위정과 염유식(2009)의 연구는 계급 간 경제적 자원과 성적의 차이에 따라 상대적 위험회피 전략이 다름을 발견하였다. 즉 상층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위험을 덜 느끼며, 따라서 하층에 비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국 학업성취의 차이로 이어지게 됨은 여러 선행연구들이 실증한다(박현정·상경아·강주연, 2008).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는 의미 있는 타자인 교사나 부모와의 관계, 학생의 진학 및 직업포부, 부모와 자녀의 기대수준 동조 등을 고려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의 정적효과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곽수란, 2006; 김두환, 2008; 심경섭・설동훈, 2010; 차종천・오병돈, 2012). 특히 대입 입시를 앞둔 고3에게는 사회적 자본이 대입 진학에 대한 정보원이자 심리적 지원군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으나, 고3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이 미친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다소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문화자본의 관점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Bourdieu의 문화자본은 효과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정의,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고급/저급 문화 취향과 활동 같은 협의의 문화자본뿐만 아니라, 독서나 여가, 태도, 생활과 같은 광의의 문화자본도 문제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교육계층화에 대한 문화자본론의 해석은 매우 상이해질 수 있다. 가령 김두환・김문조・이왕원(2013)은 고교생들의 여러 과목에 대한 폭넓은 관심인, 흥미 다양성은 문화적 융합능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측정된 고급-문화적 활동과는 관련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김경근・변수용(2007)도 소수 주요과목에 대한 집중・제한된 입시구조를 가진 현 한국사회에서 문화자본과 학업성적과의 정적인 관계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입을 결정짓는 고3 시기는 각 개인의 삶 전체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등학교 3학년 시기, 학교유형, 학업성취, 가정의 지원, 여가, 인생관이 중첩된 '고3의 생활'은 이후 성년기 삶의 궤적에 너무나 복합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고3 시기를 여느 다른 시간대와 같이 고려한다면, 한 개인의 삶에서 가지는 고3 시기의 복합-다면적인 영향력을 간과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이 기저에는 사회경제적 위계라는 불평등 구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밝힌 바처럼 사회적 위계와 교육계층화 변수들의 분포와 관계성,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 위계와 교육적 불평등 구조의 상동성을 살펴보는 중다대응분석(MCA)를 활용하여 교육계층화의 관점에서 고3 시기의 삶의 면면을 조망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방법의 적용과 해석의 차원에서 하나의 이론적 장치를 보조하고자 한다. 중다대응분석(MCA)은 많은 변수들의 관계를 요약, 축소하여 보여주는 분석기법이다. 하지만 많은 변수를 고려할 때 관계를 살피는 것에 해석의 문제와 부담이 제기된다. 가령 본 연구에서는 두 차원이 교차된 면에 평균적으로 약 60~70개의 점(plot)이 산포되게 된다. 이 같은 해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

교 유형을 해석적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는 과거 평준화 정책 때의 고교와는 달리 최근에는 명문-일류 대학 입학의 전초기지로서 외고, 과고 같은 특목고로 대표되는 고교유형의 위계-차별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이론적 토대에 기초한다(김문조, 2008; 김성식, 2009; 박소영・민병철, 2009; 민병철・박소영, 2010; 변수용・황여정・김경근, 2012). 관련하여 김준엽・김경희・한송이(2013)는 고3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고, 특성화고(전문고, 실업고)의 결과도 사회경제적 위치와 높은 상관을 지님을 '선발 효과'로서 보고하고 있다. 변수용・황여정・김경근(2012)도 위세 높은 대학 진학에서의 외고효과를 경향점수 추정기법을 통해 배경변수의 동등성을 보정한 후 외고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는 외고 효과는 대학진학에서의 직접적 효과는 없었으나 수능점수에는 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김성식(2009)도 특목고가 서울 소재 대학 진학에서는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효과를 강화, 결국 높은 교육적 성취를 얻음을 보고한다. 소결하면 고교유형은 사회경제-교육적 불평등을 담지해낼 수 있는 일종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교유형은 학생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들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변수로서, 본 연구자는 고교유형이 여러 변인들의 불평등에 대한 정보를 담아내는 변인으로서 복잡한 관계를 보다 쉽게 살필 수 있는 해석적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생산・배포하는 4차년도(2007년)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을 활용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은 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4년부터 학생·가구·교사·학교행정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2004년 중학교 3학년 2,000명 및 일반계, 실업계고 3학년을 각각 2,000명씩 표집하여 지속적인 조사와 보완을 통해 한국 중고교, 대입으로의 취업까지 한국사회의 교육과 고용에 대하여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고용패널은 1단계에서 전국을 지역별로 층화(stratification)하고(특성화고

는 학교유형별로 층화), 2단계에서는 지역별 학생 수 비중에 따라(특성화고는 학교유형별 학생 수) 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서 학급 및 학생을 추출하는 층화집락추출(stratified cluster sampling)으로 선정하여 2004년 한국 중·고교 학생들을 모집단(population)으로 삼는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고3 시기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함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은 2004년 중3 때 조사되고, 이후 4년 뒤 현재 고3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특목고·일반고·특성화고(전문고, 실업고) 고3 학생들이다. 교육고용패널은 2004년 1차 조사대상으로 중3 학생 2,000명의 기존 패널을 구성하였으며, 이중 일반고 1,240명, 특성화고(전문고, 실업고) 442명이 4차년도까지 조사되었다. 하지만 일반고 집중 및 표본 유실, 특목고로 인한 고교유형의 이질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고용패널은 4차년도 신규표본 1,500명을 선정, 이중 특성화고(전문고, 실업고) 951명, 과학고 277명, 외국어고 272명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1차년도에 조사된 기존패널과 4차년도 신규패널에서 조사된 고3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으며, 고교유형 인원은 특목고 379명, 일반고 1,199명, 특성화고 1,393명이다.

유의할 사항으로 본 연구는 고교유형별 표본 학생 및 해당 학생들의 부모 및 가정사항을 조사한 가구자료를 통합(merge)하였으나, 가정 상황 및 소득 등 민감한 질문이 많은 가구자료의 결측에 따라 분석에서 활용한 소득 및 아버지 직업 변수에는 결측이 많다는 점이다. 해당 결측치들은 중다대응분석(MCA)에서는 결측치를 제외,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특목고 학생들의 자료 중, 조사된 과학고 학생 277명 중, 206명은 조기 졸업한 상태였다. 따라서 특목고의 학생들은 외고 293명, 과학고 73명, 예체능고 8명, 자사고 5명으로 구성된 범주임을 밝힌다.

3. 연구변수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 고3 시기 삶의 중층적 단면들을 축소 및 평이화하여 보여주는 것이 연구목적인 만큼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부모와 가정의 경제-문화적 자원을 측정하는 사회경제차원, 학생의 학업 성적 및 사교육비 지출, 학교만족

도를 측정하는 학업차원, 의미 있는 타자들과의 관계 및 교육성취에 도움이 되는 규범과 행위를 고양하는 기대의 망으로서의 사회적 자본(Coleman, 1988; 김두환·김문조, 2005)으로 가정의 진로지도와 진로정보처를 사회자본차원, 학습의 차원을 떠나 아비투스로서 여가활동과 시간, 독서분야를 문화자본차원으로, 마지막으로 교육 열망이 교육적 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wisconsin 모형의 논의(Sewell & Shah, 1967; Sewell & Haller & Portes, 1969; Sewell & Hauser, 1980)를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 희망학력, 인생관, 직업관을 의식차원으로 고려하였다.

이상 〈표1〉에서는 위에서 고려된 고3 시기 삶의 면면을 학업, 사회자본, 문화자본, 의식관의 차원으로 고려하여 세부적 변수들을 측정하였다. 또한, 고3 학생의 사회경제적 위계를 나타내는 변수들을 사회경제지위 차원으로 설정하였음을 보여준다. 세부적인 변수 설명 및 측정은 각 분석 부분에서 표로 제시된다.

<표 1> 분석변수 측정 및 설명

4.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고3 시기 삶의 단면들과 관계성을 중다대응분석(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이하 MCA)를 활용하여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중다대응분석은 기본적으로 대응일치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토대·발전한 분석방법으로, 이는 분할표(contingency table)자료의 행과 열을 저차원의 공간상에 지도로 표시하여 그들의 대응관계를 탐구하려는 탐색적 자료 분석방법이다.

서론에서 기술하였듯이 교육불평등, 교육계층화관련 선행연구들은 원리적으로는 회귀분석을 기초로 한 분석방법을 사용, 즉 관심 변수에 대한 설명(explain)을 주 초점으로 삼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할 중다대응분석(MCA)의 방법론적 목적은 복잡한 자료를 요약하고, 평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술적(descriptive) 부분에 초점을 둔다. 중다대응분석은 다차원의 변수들의 복잡한 관계를 소수 몇 개의 축을 기준으로 '조망'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복잡한 변수들을 행과 열에 재배치하여 하나의 큰 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버트 표(Burt table)이라고 하며 이 표를 통하여 복잡한 자료를 간단하게 한 두 개의 축(axis) 상에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특별한 경우로서 분석 자료에 나타난 개체와 변수를 몇 차원의 공간에 점(point)으로 표현하는 분석기법인 다차원척도법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입력자료의 종류, 표현방식과 수준에서 구분된다(Benzecri, 1992; 이명진, 1997; 김성호, 2000; Abdi & Valentin, 2007; 노형진, 2008; 2011).

특히 본 연구의 적용차원에서 중다대응분석은 한국사회, 복잡한 고3 시기의 삶의 단면들과 관계를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다소 생소한 본 분석방법론의 설명과 관련하여 노형진(2008, 2011)은 중다대응분석방법이 프랑스에서는 대응분석, 미국에서는 최적화 척도법(optimal scaling), 캐나다에서는 쌍대척도법(dual scaling), 일본에서는 수량화 이론(quantification theory), 네덜란드에선 동질성 분석(homogeneity analysis)이란 분석방법으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발전해왔지만, 결국은 모두 고유방정식을 푸는 문제로 귀결됨을 보고한다고 말한다. 이는 방법론적 유용성은 있되, 그 교류와 확산의 문제가 있음을 함의한다.

중다대응분석의 방법론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본 분석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의 일환으로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 등이 중다대응분석과는 유사한 분석방법론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두 변수의 관계만을 다루는 대응일치분석(CA)을 활용한 연구들은 소수 있는 편이다. 하지만 많은 변인들의 관계를 다루는 중다대응분석(MCA)는 주로 통계 관련 학과에서 수학적 원리, 특히 적용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단계이다(김경희, 2001; 김지영, 2010). 분석의 적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과학의 학술지 수준에서는 사회적 공간과 문화지형도를 탐색하는 최샛별・이명진(2012)의 연구만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관련하여 최샛별・이명진(2012)은 영국을 제외한 유럽국가들에서는 Bourdieu가 사용하였던 분석기법인 대응분석과 더불어 다양한 방법론을 혼용하여 사회적 위계와 문화적 실천 사이의 지형도를 그리려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어 왔음을 밝힌다. 하지만 회귀분석의 전통이 강한 북미와 한국에서는 대응분석과 관련된 연구가 빈약함을 보고한다. 대응분석의 활용에 대해서 Chan과 Goldethrope(2007)은 대응분석이 애매한 결과를 도출, 혹은 왜곡된 결과해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즉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설명(Explain)해 줄 수 있는 회귀분석 계열의 추정치들이 정확한 설명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최샛별과 이명진(2012)은 비판적 사회학의 반실증주의적 풍토에서는 대응분석이 대단한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미국적인 방법론 틀에서는 미진하게 여겨졌음을 지적한다.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분석기법의 활용은 크게 두 가지의 장점을 지니는데, 첫째는 중다대응분석은 변인 간의 이론적 관계를 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장점이다. 즉 변수 간의 관계가 인과성(causality)이 아닌, 관계 그 자체를 기술(descriptive)한다는 점에서 연구자가 예상하지 못한 중요한 관계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비록 설명의 정도(degree)를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독립변인들 간의 관계를 시각화하여 쉽게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변수 간의 관계를 넘어선, 관계의 양태라는 지형도를 그릴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범주형 변수를 분석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회귀분석의 유형에서는 수십 개의 가변수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구의 적용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범주형 변수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중다대응분석 기법의 활용은 더욱 의미를 갖는다.

적용의 차원에서 본 연구는 여러 선행연구들이 지목해왔던 교육격차・불평등의 논의에서 부모-가정 자원격차를 고교유형을 중심으로 학교 유형, 성적과 사교육 같은 학업적 차원, 의미 있는 타자, 즉 부모와 선생이라는 사회적 자본, 아비투스로서 여가와 문화자본, wisconsin 모형에서 열망 및 포부로 고려하고 있는 인생관, 직업관, 기대교육 같은 의식차원의 누층-다차원적 관계들을 분석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중다대응분석(MCA)를 통해 사회경제적 변수들과의 관계를 시각화함으로써, 고3 시기 드러나는 사회적 위계와 교육불평등의 상동성을 밝힌다. 이는 한국사회 고3 시기 교육불평등의 복잡한 관계를 밝힘과 동시에 해결의 단초를 던져준다.

Ⅳ. 분석결과

1. 주요변인 기술통계

〈표 2〉는 본 연구에서 활용될 변수에 대한 간략한 기술통계이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사회과학연구, 특히 교육격차 및 불평등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관심 변인을 설명하기 위해 상관 및 회귀분석을 주된 분석기법으로 활용하였다. 상관 및 회귀분석은 분석 변인의 등간성(interval) 및 서열성(ordinary)를 가정하게 됨으로써, 〈표 2〉와 같이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기술하면 변수의 분포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보다는, 관계 그 자체를 보기 쉽게 요약·표현하는 중다대응분석(MCA)를 활용하는 본 연구는 범주형(categorical) 변수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게 된다. 따라서 〈표 2〉에서 제시된 일반적인 기술통계치들로는 변수들의 특성을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고 있는바 범주형 변수들의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의 제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주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MCA 분석결과에서는 범주형 변수들이 개별적으로 도표상에 산포되기 때문에 해석에는 지장이 없으리라 본다.

<표 2> 분석변수 기술통계

차원	변수명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회경제	학교유형(범주)	2971	1	3	-	-
	성별(범주)	2976	1	2	1.51	.50
	가구소득(서열)	2347	1	5	2.78	1.33
	아버지학력(서열)	2171	1	5	3.25	1.14
	학교소재지(범주)	2974	1	7	-	-
	아버지직업(범주)	1988	1	24	-	-
	문화자본(서열)	2153	1	4	2.23	.59
학업	고교학업성취(서열)	2956	1	9	4.27	1.67

〈표 계속〉

차원	변수명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학교만족도(서열)	2965	1	5	3.25	.90
	사교육지출(서열)	2947	1	5	1.76	1.13
사회자본	교사와의 관계(서열)	2975	1	5	3.62	1.43
	진로정보처(범주)	2963	1	14	-	-
	가정 진로지도(서열)	2975	1	6	4.06	1.36
문화자본	평일여가 활동유형(범주)	2959	1	14	-	-
	여가시간(서열)	2976	1	5	3.10	1.35
	독서책 분야(범주)	2964	1	9	-	-
의식관	희망학력(서열)	2971	1	5	2.87	.97
	삶에 중요한 것(범주)	2974	1	10	-	-
	직업선택에 중요한 것(범주)	2974	1	10	-	-

또한,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MCA 분석은 복잡한 변인들의 관계를 주요요소분석방법을 토대로 몇 개의 차원으로 축소·요약하는바, 변수의 수가 증가할수록 원 정보의 상실을 일으킨다. 이는 총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몇 개의 축, 혹은 몇몇 변수들의 관련 요소(본 연구에서는 1, 2차원만을 고려)만을 고려하게 됨으로써, 변수들 간에 숨어 있는(이하 차원들) 다른 관련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 즉 MCA 분석에서는 많은 변수들이 단 두 차원으로만 설명됨으로써 어느 정도 정보의 손실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MCA 분석에서 먼저 고려된 차원1과 2는 복잡한 변수들의 행렬, 관련 요소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즉 '최적화'된 축 혹은 차원으로, 수많은 변수들의 관계를 가장 최적화, 더불어 시각화해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함의가 존재한다. 〈표 3〉은 본 연구 MCA 분석결과의 관성(inertia)을 기재한 것으로, 관성은 각 차원의 자료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알려주는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1, 2차원만을 분석적 대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가령 사회경제 차원 같은 경우는 두 차원을 합해 전체 자료의 61.3%를, 학업의 경우는 58%가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사회경제적 지위와 고3 시기 삶의 단면 주요 차원 MCA 분석결과의 관성(inertia)

관성	사회경제	학업	사회자본	문화자본	의식
1차원	.365	.304	.268	.285	.294
2차원	.248	.176	.174	.179	.185
3차원	.228	.160	.161	.175	.172

2. 중다대응분석(MCA) 분석결과

본 분석에서는 우선 가정의 경제, 문화자본과 같은 배경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후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된 고3 시기 삶의 단면들을 학교유형을 중심으로 사회경제 배경 및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를 명세히 살펴본다.

가.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교유형의 MCA 결과

먼저 본 연구는 MCA를 통해 고3 학생들의 부모와 직업 지위 및 학력,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 문화 활동의 향유, 거주지역과 학교유형 간의 상동성을 살펴본다. 특히 본 분석에서는 특목고의 결과가 중요히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평준화 정책 때의 고교와는 달리 최근에는 위세 높은 대학 입학의 전초기지로서 고교유형의 위계-차별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한 결과이다(김문조, 2008; 박소영・민병철, 2009; 변수용・황여정・김경근, 2012). 김준엽・김경희・한송이(2013)는 고3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고, 특성화고(전문고, 실업고)의 결과도 사회경제적 위치와 높은 상관을 지님을 '선발 효과'로서 보고하고 있는바, 본 분석에서는 각 고등학교 유형과 부모-가정의 사회경제 배경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본다. 〈표 4〉에서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교유형 간 MCA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의 세부적인 설명과 측정을 제시한다.

<표 4>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교유형의 변수설명과 측정

차원	변수 명	변수설명	비고
사회경제	학교유형(범주)	- 재학 중인 학교 유형 1) 특목고, 2)인문고, 3)특성화고(전문고, 실업고)	
	성별(범주)	0) 여자, 1)남자	
	가구소득(5분위)	- 가구 소득을 5분위 서열-범주화 1) 0 ~ 190(만원, 소득5) 2) 190.1 ~ 278(만원, 소득4) 3) 278.1 ~ 367(만원, 소득3) 4) 367.1 ~ 507(만원, 소득2) 5) 507.1 ~ 최고값(만원, 소득1)	* 2007년 통계청 분위별 가구소득을 기준을 참고하여 가구소득을 5분위하였음. *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1 낮을수록 소득5에 가까움.
	아버지학력(서열)	- 아버지의 학력 1) 대학원 이상 졸(학력1)	* 부학력이 높을수록 학력1

〈표 계속〉

차원	변수 명	변수설명	비고
		2) 4년제 졸(학력2) 3) 전문대 졸(학력3) 4) 고졸(학력4) 5) 중졸이하(학력5)	낮을수록 학력5에 가까움.
	학교소재지(범주)	- 응답 학생의 학교소재지 1)서울, 2)광역시, 3)경기도, 4)강원도 5)충청도, 6)전라도, 7)경상도	
	아버지직업(범주)	- 아버지의 직업범주 한국고용직업분류(Korean Employment Classification of Occupation, 이하 KECO) 대분류를 기준으로 총 25개 직업범주고려	* MCA 분석결과에서 직업별 분포를 확인가능.
	(평균)문화자본(4분위)	- "귀댁에서는 가족과 함께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자주합니까?"의 세부문항인 (외식하기/영화, 연극, 뮤지컬등 관람/박물관, 미술관, 음악회등 관람/여행, 등산, 낚시등/운동)에 대한 응답을 평균화 하였음. * 개별 응답의 측정은 비고와 같이 측정.	* 1) 전혀하지 않음 2) 일 년에 몇 번 3) 한 달에 몇 번 4) 일주일에 몇 번

〔그림 1〕의 분석결과는 고교유형을 중심으로 한 한국사회의 교육적 양극화, 혹은 불평등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목고의 주변에는 소득 최상위 수준을 의미하는 '소득1'과 아버지의 학력 또한 가장 높은 학력과 가까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아버지의 직업지위 또한 보건의료, 과학연구와 같은 위세 높은 직업이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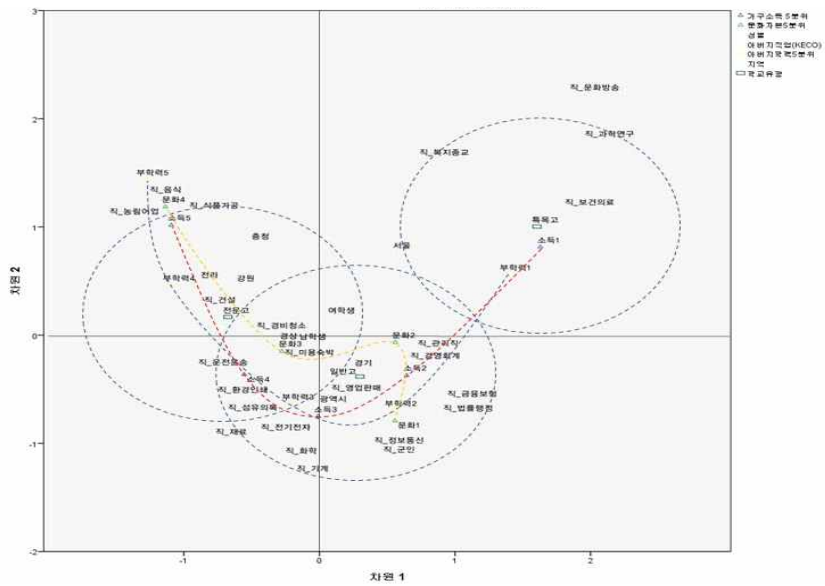
한국사회에서 절대적 다수를 형성하는 일반고 학생의 경우에는 소득범위 2~4로 경제적 중간층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소득의 분포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2'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직, 금융보험, 법률행정 등 상위 전문직종으로 높은 위세의 직업과 근접하고 있으며, 소득4의 경우에는 운송, 섬유화학, 재료 등 중하위 육체노동직으로 더욱 낮은 위세의 직업이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 결과를 종합한다면, 한국사회에 특목고는 일반고와 명확한 거리 및 구별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최상위 소득과 높은 학력을 지닐수록 자녀의 교육에서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와의 문화 활동을 측정한 문화자본의 경우에는 특목고와 일반고의 차이를 구별 지을 수 없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문화자본으로 측정한 문화 활동이 최상위층과 중상층을 구별 짓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자본은 '소득2' 분위부터 매우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다음으로는 일반고와 특성화고(전문고, 실업고)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경제 배경의 지형도를 파악해본다. 특목고와 일반고의 거리만큼은 아니나, 일반고와 특성화고(전문고, 실업고)의 거리 또한 '구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성화고(전문고, 실업고)의 경우 소득 최하분위, 가장 낮은 아버지 학력과 문화자본, 아버지의 직업지위 또한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직업 위세로 보고되는 농림어업, 건설직, 식품가공직과 높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결하면, 한국사회의 상/중/하층이라는 계층적 구분은 특목/일반/특성화고(전문고, 실업고)라는 학교유형으로 상동(homology) 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어,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을 살펴보면, 특목고나 일반고의 경우에는 서울 및 광역시, 혹은 경기도에 근접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배경 또한 상/중층과 대응되고 있었다. 하지만 일반고 중 중하위 계층 및 특성화고(전문고, 실업고)의 하위계층의 지역은 전라, 충청, 강원, 경상과 같은 지방과 대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사회구조적 지역 격차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교육격차도 이와 대응되는 문제임을 알려준다. 이는 김문조(2008), 김용순(2003)의 논의처럼 지역 간 교육격차는 주거의 양극화, 문화의 양극화, 결국 한 나라 두 국민의 '단절'의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부모-가정의 사회경제배경 변인의 MCA 결과



* 차원1의 $\lambda = .365$, 차원2의 $\lambda = .248$임.

나. 학업부문 MCA결과

〔그림 2〕는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업부문에 대한 MCA 분석결과이다. 학업부문은 구체적으로 전년도 내신성적, 사교육비 지출, 학교 전반적 만족도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학교유형을 중심으로 학생의 학업부문과 밀접한 연계가 있음을 알려준다. 〈표5〉에서는 학업차원과 관련된 변수들의 설명과 측정을 보여준다.

<표 5> 학업차원 변수의 설명과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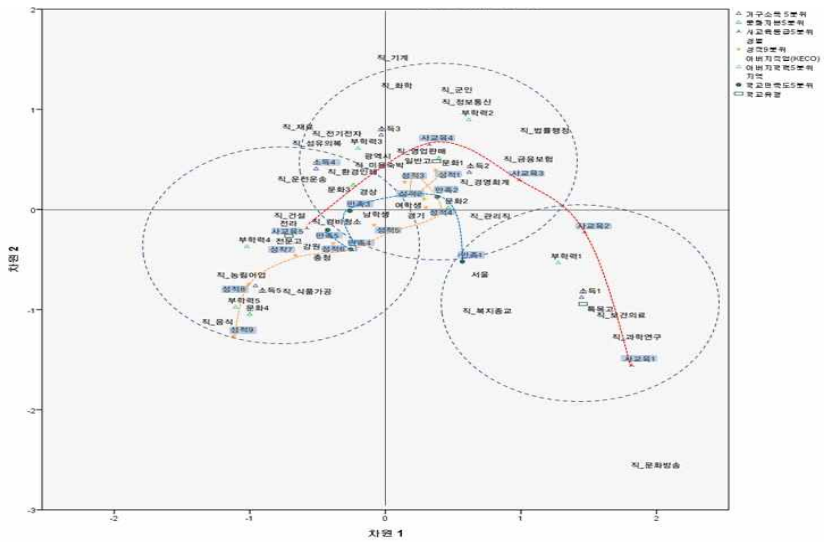
차원	변수 명	변수설명	비고
학업	고교학업성취_9분위	- 2006년 2학기 성적을 9등급으로 나눈다면 대략 몇 등급에 해당합니까? 1) 1등급(4%이하, 성적1) 2) 2등급(4%초과~11%이하, 성적2) 3) 3등급(11%초과~23%이하, 성적3) 4) 4등급(23%초과~~40%이하, 성적4) 5) 5등급(40%초과~60%이하, 성적5) 6) 6등급(60%초과~77%이하, 성적6) 7) 7등급(77%초과~89%이하, 성적7) 8) 8등급(89%초과~96%이하, 성적8) 9) 9등급(96%초과, 성적9)	* MCA의 결과에서는 성적1, 성적2… 등과 같이 표기됨. * 성적이 높을수록 성적1 낮을수록 성적9에 가까움.
	학교만족도(서열)	-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하고 있습니까? 1)매우 그렇다(만족1) 2)그렇다(만족2) 3)보통이다(만족3) 2)그렇지 않다(만족4) 1)매우 그렇지 않다(만족5)	* 기존 문항을 역코딩 하였음. * MCA의 결과에서는 만족1, 만족2… 등과 같이 표기됨. * 만족이 높을수록 만족1 낮을수록 만족5에 가까움.
	사교육지출(5분위)	- 가구에서 사교육에 쓰는 지출금액. 1) 700,001 ~ 최고값(3,000,000)(원), (사교육1) 2) 500,001 ~ 700,000(원), (사교육2) 3) 200,001 ~ 500,000(원), (사교육3) 4) 1500 ~ 200,000(원), (사교육4) 5) 0 ~ 1499(원), (사교육5)	* 사교육 지출 중, (1)은 상위 95~100% (2)는 누적 약 95% (3)은 누적 약 90% (4)는 누적 약 80% (5)는 60% * 사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사교육1, 적게 받을수록 사교육5에 가까움.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들의 분석은 앞에서 진행하였으므로 학업부문과 관련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사교육지출 변수의 1, 2가 특목고 근처에 분포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일반고를 지나 사교육을 거의 받지 않음을 의미하는 5의 값이 특성화고(전문고, 실업고) 근처에 대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결하면 김위정과 염유식(2009)의 논의처럼 소득과 직업지위가 높은 상위 계급에서 사교육에 지출이 높으며, 특히 높은 사교육비 지출이 특목고와 밀접히 대응된다는 점에서 사교육은 부모들의 주요한 계급 재생산 또는 상향이동의 전략이며, 지위경쟁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성적 변수의 분포는 다소 의아함의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특목고는 '선발 효과'를 논외로 치더라도 높은 성적과 함께 좋은 대학을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 MCA 분석결과에서는 일반고의 학생들이 더 높은 성적을 얻은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는 본 연구에서는 성적을 2006년도 2학기, 즉 조사 전 학기 내신 성적을 변수로 고려함으로써 성적, 경쟁지향이 강한 외고에서 '상대적' 내신 성적을 낮게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는 '절대적' 평가인 대입수능을 고려할 때는 특목고가 더 좋은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학교 전반 만족도는 두 축의 원점(0)의 교차점에 분포하므로 두 축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특목-일반-특성화고(전문고, 실업고)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2] 학업부문 MCA 결과



* 차원1의 λ = .304 , 차원2의 λ = .176임.

다. 사회자본부문 MCA 결과

〈표 6〉에서는 사회자본 부문을 측정하는 변수들의 설명과 측정을 보여준다.

<표 6> 사회자본 차원 변수의 설명과 측정

차원	변수 명	변수설명	비고
사회 자본	교사와의 관계(서열)	- 학교선생님에 대한 질문 중, 세부 하위문항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 /나의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이 있다/ 좋아해주는 선생님이 있다/ 나를 이해해주는 선생님이 있다), 이상 4문항에 대한 응답인 예(1), 아니오(0)을 총합하여 변수 구성.	* Cronbach' a=.753 (이분형 변인이므로 KR-20 신뢰도 분석방법으로 측정) * 결과는 역코딩 하였으며, MCA결과 중 '교사1'은 총 4점을, '교사4'는 총 0점을 의미.
	진로정보처(범주)	- 진로관련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습니까? 1)아버지, 2)어머니, 3)학교 선생님 4)학원 선생님, 5)형제, 6)친척, 7)친구 8)선배, 9)취업, 유학, 진학 박람회 10)진로정보제공 전문기관 11)신문, TV, 라디오, 12)인터넷 13)진학정보 서적, 14)기타	
	가정 진로지도(서열)	- 가정의 진로 지도 중, 세부 하위문항(어떻게 살지에 대한 대화/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직업, 학교, 학과 선택에 대한 대화/직업, 학교, 학과 정보찾기에 대한 대화), 이상 4문항에 대한 응답을 평균화 하였음. *개별 응답의 측정은 비고와 같이 측정.	* 1)전혀 없다. 2)일 년에 1~2번 3)한 학기에 1~2번 4)한 달에 1~2번 5)일주일에 1~2번 6)거의 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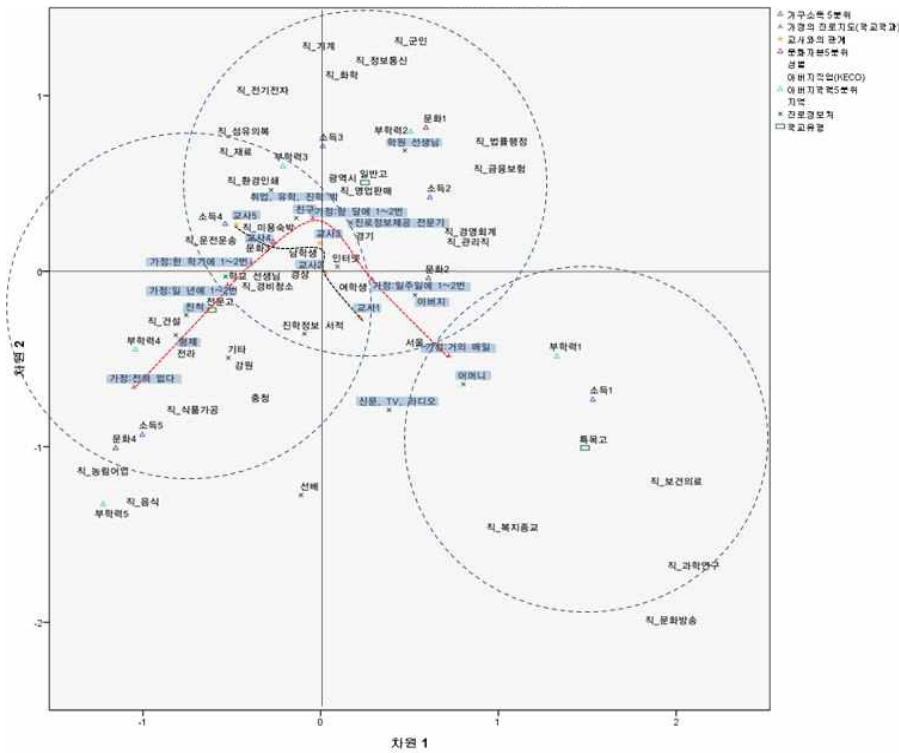
〔그림 3〕에서는 Coleman의 논의를 중심으로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의미 있는 타자나 가정의 사회적 자본을 살펴봄에 목적을 둔다. 결과를 보면 우선 가정의 진로지도 중, 학교나 학과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나누는지를 측정하였다(빨간 점선). '거의 매일' 한다는 특목고와 근접하고 있으며, 일반고의 근처에는 '일주일에 1~2번', '한 달에 1~2번'하는 것으로 분포하였다. 반면 특성화고(전문고, 실업고)의 경우에는 '한 학기에 1~2번', '일 년에 1~2번', 혹은 진학할 학교에 대해서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와의 정보를 얻는 사람이나 루트는 누구인가? 결과를 보면 특목고의 경우

어머니에게 진로정보를 얻는 경향이 강했으며, 일반고로 갈수록 아버지, 진로제공 전문가, 친구, 학원 선생님에게 진로 정보를 상담하고 얻는 경향이 있었다. 특성화고(전문고, 실업고)의 경우에는 형제나 친척, 학교 선생님에게 진로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형제나 친척의 진로정보의 부정확성을 고려할 때 공식적인 진로정보를 사실상 제약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각각의 진로정보처 대상들은 학교학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유사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즉 어머니의 경우에는 진로지도에 대해 거의 매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며 형제나 친척의 경우에는 진로지도 이야기를 거의 나누지 않는 것과 유사하게 배치되어 있다.

다음으로 교사와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를 측정하였는데(검은 점선), 결과를 보면 교사와의 관계는 양 축의 원점에 위치하고 있어 교사와의 관계는 학교유형 및 사회경제 배경과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사회자본 부문 MCA 결과



* 차원1의 λ = .286 , 차원2의 λ = .174임.

라. 문화자본부문 MCA 결과

〔그림 4〕에서는 문화자본의 관점에서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평일 여가활동 유형 및 평균 여가시간, 독서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변수용과 김경근(2008)은 표준화된 교육커리큘럼, 입시시험이 최종적 목적인 교육방향, 과도한 사교육에 따른 여가시간의 부재 등으로 한국사회에서는 Bourdieu의 계급 간 상징적 경계를 의미하는 아비투스 및 문화자본론의 관점이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고용패널에서 가용가능한 문화자본차원의 변수들을 평일여가활동 유형, 평균 여가시간, 독서분야를 선정하였다. 〈표 7〉은 세부적인 변수들의 설명과 측정을 보여준다.

<표 7> 문화자본 차원 변수의 설명과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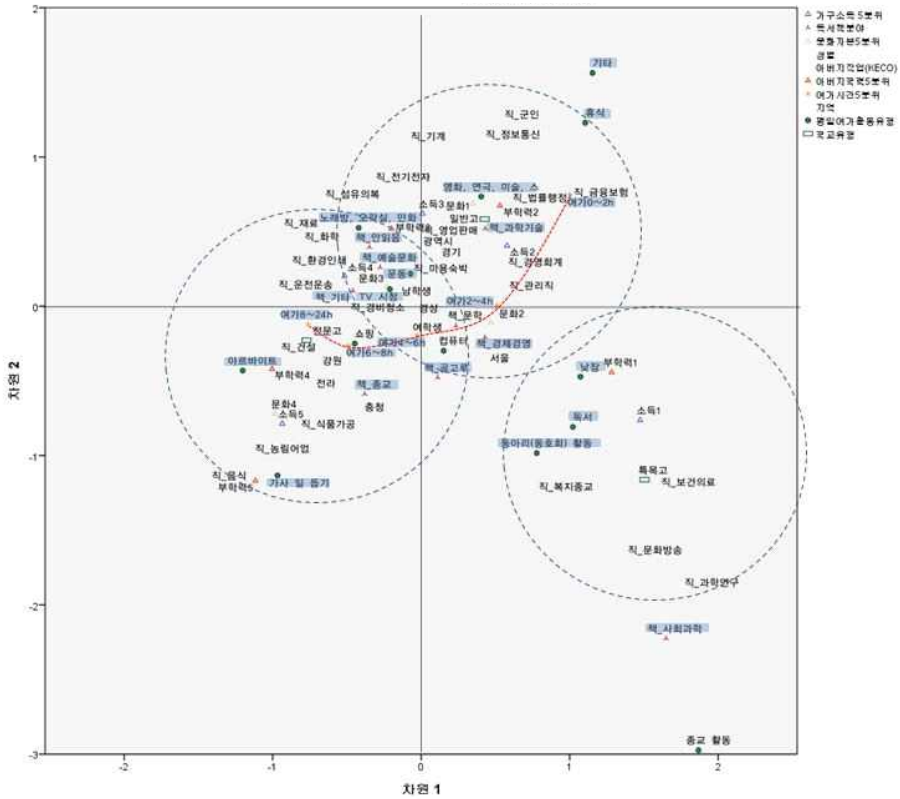
차원	변수 명	변수설명	비고
문화자본	평일여가 활동유형(범주)	- 평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1순위만 응답) 1)TV 시청, 2)컴퓨터, 3)독서, 4)운동, 5)영화, 연극, 미술, 스포츠 등 관람 6)종교 활동, 7)동아리(동호회) 활동 8)노래방, 오락실, 만화방 등 9)쇼핑, 10)아르바이트 11)가사 일 돕기 12)낮잠, 13)휴식 14)기타	
	여가시간 (5분위 평균)	- 평일과 주말 여가시간의 평균을 5분 위화. 5) 0 ~ 2(hour) 4) 2.1 ~ 4h 3) 4.1 ~ 6h 2) 6.1 ~ 8h 1) 8.1 ~ 24h	* 평균과 주말에 기재한 여가시간을 평균화 한 뒤, 분위별 %를 고려하여 총 5분 위화 하였음.
	독서 분야(범주)	- 주로 어느 분야의 책을 읽었습니까? 1) 문학(시, 소설류) 2) 과학, 기술, 컴퓨터 3) 경제, 경영 관련 4) 사회과학 5) 예술, 문화, 스포츠 6) 종교 7) 분야에 관계없이 골고루 8) 기타 9) 안 읽음	* '9)안 읽음'은 전 문항인 한 달 평균 책을 몇 권 읽습니까에 0권으로 대답한 학생들을 안 읽음 범주로 고려하였음.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평일과 주말의 평균 여가시간(빨간 점선)은 일반고의 경우 0 ~ 4시간 정도인 것으로 대응되고 있다. 반면 특성화고(전문고, 실업고)의 경우에는 4 ~ 24시간의 응답범주가 대응되고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여가시간은 사교육 및 자기주도 학습시간과 상반되는바, 보다 명시적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일반고 고3 학생들은 여가시간의 향유보다는 사교육 및 학습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방증하는 결과이다.

평일의 여가활동 유형 결과를 살펴보면, 특목고와는 동아리, 독서, 낮잠의 여가활동이 대응되고 있는데, 사실 대입을 준비하는 고3 시기 평일 여가활동은 거의 전무한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인바 이는 학교가 끝난 뒤에 학습 과정의 연결로서 해석될 수 있는 여가활동으로 생각된다. 일반고의 경우에는 영화/연극/콘서트, 휴식 등이 대응되고 있으며 이는 아버지의 직업지위와 소득과 대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래방, 오락실, 만화나, 운동, TV 시청과 같은 여가활동은 양 축의 원점 및 특성화고(전문고, 실업고)와 일반고의 중간에 대응하고 있어 평균적인 고3들이 즐기는 여가활동으로 해석된다. 특성화고(전문고, 실업고) 및 소득 최하위 수준에서는 여가활동으로 아르바이트가 대응되고 있어 하층 학생의 경우에는 경제-문화자본 및 시간 모두에서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배계급의 고급-지위문화의 형성이 미약하고, 전반적으로 평준화된 한국 교육체계에서는 독서유형이 학습 및 공부를 장려하는 가정 분위기를 담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비투스 및 문화적 자본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독서유형을 사회경제 배경과 대응시켜본 결과 사회배경에서 상층의 경우 사회과학 및 과학기술 서적이 대응되고 있었으며 이는 아버지의 직업지위에 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른 독서유형은 양 축의 원점에 근접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배경 및 학교유형과는 크게 대응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결하면, 고교, 특히 고3 시절의 여가향유는 사회경제적 위계나, 학교유형에 따라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림 4] 문화자본 부문 MCA 결과



* 차원1의 λ=.285 , 차원2의 λ= .179임.

마. 의식관부문 MCA 결과

〔그림 5〕에서는 고3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의식의 관계를 인생관, 직업관, 희망기대학력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본다. wisconsin 모형에 의하면 기대학력으로 대표될 수 있는 '열망' 및 '포부'는 이후 학업 및 지위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Sewell & Shah, 1967; Sewell & Haller & Portes, 1969; Sewell & Hauser, 1980; 김두환, 2008; 심경섭・설동훈, 2010; 차종천・오병돈, 2012). 〈표 8〉에서는 의식관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된 변수들의 측정과 설명을 보여준다.

<표 8> 의식관 차원 변수의 설명과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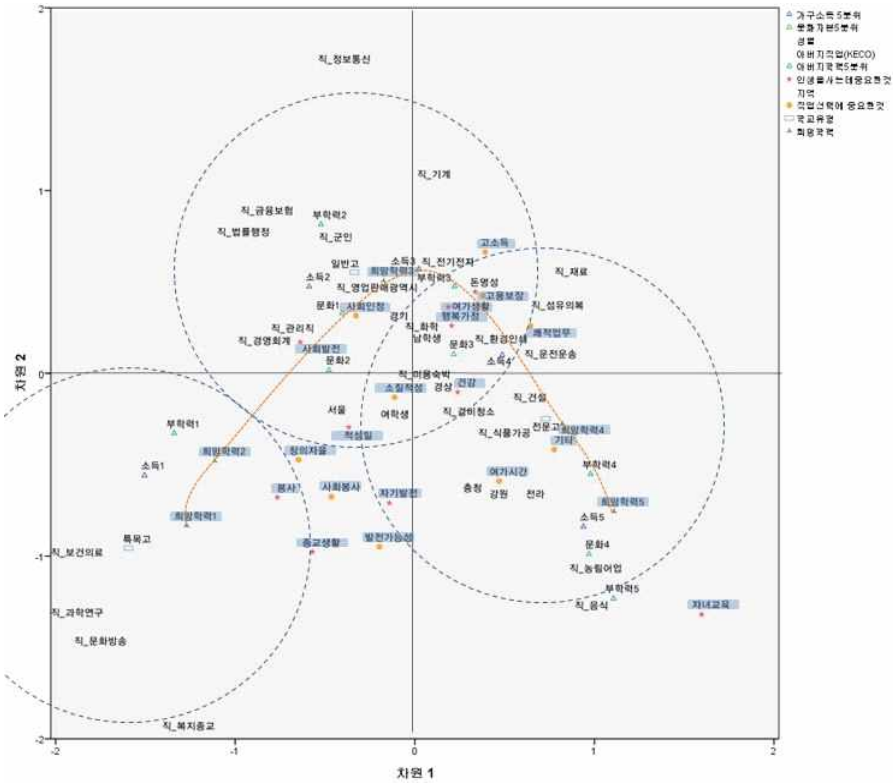
차원	변수 명	변수설명	비고
의식	희망학력(서열)	- 학생이 수학받기를 희망하는 학력, 1) 대학원 박사 (희망학력1) 2) 대학원 석사 (희망학력2) 3) 4년제 대학 (희망학력3) 4) 2~3년제 대학 (희망학력4) 5) 고교 이하 (희망학력5)	* MCA의 결과에서는 희망학력1, 희망학력2… 등과 같이 표기됨. * 희망학력이 높을수록 희망학력1, 낮을수록 희망학력5에 가까움.
	삶에 중요한 것(범주)	-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2)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3)돈과 명성을 얻는 것 4)종교생활을 잘 하는 것 5)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 6)더 많이 배우고 자기 발전을 하는 것 7)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 8)건강하게 사는 것 9)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 10)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 각각의 유형은 주요 키워드로 MCA 결과에서 표기되었다. (가령, 2의 경우는 적성, 5의 경우 사회발전과 같이 표기된다.)
	직업선택에 중요한 것(범주)	-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1)나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2)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서 3)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될 것 같아서 4)나의 발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 5)사회에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6)여가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많을 것 같아서 7)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8)창의성 및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9)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 각각의 유형은 주요 키워드로 MCA 결과에서 표기되었다. (가령, 2의 경우는 소득, 5의 경우 사회봉사와 같이 표기된다.)

결과를 살펴보면 희망학력(주홍점선)은 사회경제적 위계 및 학교유형과 대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대학원 박사와 석사를 의미하는 희망학력 1과 2는 그림의 3사

분면에서 소득 및 아버지 학력 최상위 변수와 대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년제 대졸을 희망하는 희망학력 3은 일반고와 소득 및 부의 학력 중위집단과 대응되고 있으며, 2년제 및 고졸을 희망하는 학력이 특성화고(전문고, 실업고)와 소득 및 부의 학력 하위집단과 대응되고 있었다. 소결하면, 교육 열망으로 대변될 수 있는 희망학력은 사회의 위계적 구조 및 학교유형과 높은 정도로 대응되고 있어 학생의 의식과 심리 차원에서도 교육 불평등의 침투를 살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직업관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기 이전에 축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가로축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세로축은 직업관과 의식관에서 하단 부분은 창의 자율, 적성과 같은 '하고 싶은' 이상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단 부분은 고소득, 고용보장, 사회인정과 같은 현실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유형과의 대응관계는 찾기 어렵지만 이를 살펴본다면, 특목고 및 상층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닐수록 이상적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일반-특성화고(전문고, 실업고) 및 중층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은 소득 및 사회적 인정, 행복한 가정, 고용보장과 같이 현실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사회경제적 하층으로 내려갈수록(1사분면→4사분면) 건강, 쾌적한 업무, 여가시간 등 '성공'보다는 '안정'을 담보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마지막으로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인생관도 직업관과 상당히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직업관보다는 특별한 경향성 및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소결하면, 직업-인생관은 서로 밀접히 대응되고 있었으며, 사회경제적 배경이 상층일수록 희망-이상적 목표추구를, 하층일수록 안정-현실적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5] 의식관 부문 MCA 결과



* 차원1의 $\lambda = .294$, 차원2의 $\lambda = .185$임.

Ⅴ. 결론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사회위계와 더불어 교육적 불평등이 극명하게 표출되는 고3 시기를 교육계층화의 관점에서 다차원적으로 살펴봄에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사회 고3 시기를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업성취의 관계를 우선하여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는 의미 있는 타자들의 기대를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을 고려하는 문화자본,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의식차원으로 기대학력과 인생/직업관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중다대응분석(MCA)은 기본적으로 대응일치분석(Correspondence Analysis, CA)에 그 토대를 두고 있는 분석방법으로, 이는 분할표(contingency table) 자료의 행과 열을 저차원의 공간상에 지도로 표시하여 그들의 대응관계를 탐구하려는 탐색적 자료 분석방법이다. 특히 MCA 분석은 복잡한 자료를 한 두 개의 축(axis) 상에 시각화하여 표현하게 된다. 이는 복잡한 변수들의 관계를 한 평면에서 표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관계나 상동성(homology)를 파악할 수 있게 하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고3 시기 전반의 양태를 '조망' 할 수 있다는 방법론적 장점을 지닌다.

중다대응분석(MCA) 결과를 간략히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고3 학생의 부모-가정의 사회경제 배경 변인의 관계성을 학교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학교유형 특히 특목고는 사회구조적 위계와 강하게 대응되었다. 가구소득 및 아버지 학력과 직업 위세가 최상위 집단이 특목고와 대응되었으며, 지역도 서울이 대응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반고와 특성화고(전문고, 실업고)의 위계적 구조 또한 확인되었는데, 일반고의 경우 이질성이 큰 편이지만 가구소득 중상-중하, 부의 학력과 직업위세도 중상-중하로 대응되고 있었으며, 지역적으로는 경기도와 광역시가 대응되었다. 반면 특성화고(전문고, 실업고)는 한국사회의 하층 구조를 대변하고 있었는데, 가구소득 및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 위세가 최하위인 집단이 대응되었으며, 지역 또한 지방의 분포가 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중다대응분석 이론적 가정을 하지 않은 일종의 기술통계라는 점에서 고교유형은 변수들의 분포를 담아내는 일종의 요인임을 가정하였는데, 분석결과 고교유형은 사회적 위계와 밀접하게 상응하며 분포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 위계가 고교유형까지도 침투하였음을, 그리고 고교가 대입의 선발기지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변수용 외(2012)와 김준엽 외(2013)의 논의를 지지한다.

두 번째는 고3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업성취 부분의 관계를 조망해보았다. 여러 선행연구들은 한국사회에서는 부모의 계급, 계층적 자원이 사교육으로 변모, 학생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적, 만족도, 사교육지출을 변인으로 고려하여 그 관계를 살펴보았다. 간략히 결과를 설명하면, 사교육은 사회구조와 상당한 상동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가령 앞서 검증한 바처럼 사회적 상위 집단으로의 특목고에 사교육 지출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일반고, 특성화고(전문고, 실업고)의 순으로 사회경제구조와 상응하며 분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내신 성적의 경우에는 특목고 보다 일반고와 특성화고(전문고, 실업고)의 차이가 두드러졌으며, 특목고와 소득/부학력 최상위 집단과는 대응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위계와 성적의 분

포도 서로 정적 상응하였다. 사교육의 효과를 추정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한다면 가정의 경제적 배경은 사교육을 경유하여 고3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김위정·염유식, 2009; 박현정·상경아·강주연, 2008).

세 번째는 Coleman의 논의를 확장시킨 의미 있는 타자로서 교사, 부모와의 관계 및 진로정보의 획득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자본 또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상당히 정적 대응을 이루고 있었다. 학교 및 학업진로에 대해서 부모와 얼마나 상담하는지를 측정하였을 때, 특목고는 거의 매일, 일반고는 일주일에서 한 달 간격, 특성화고(전문고, 실업고)는 한 학기나 일 년의 간격으로 각각 대응되어 가정의 지원 또한 불공평한 자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진로정보를 획득하는 곳에 있어서도 사회경제적 위계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아버지가 주요 정보원이 되었고, 또한 입시 전문가나 학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특성화고(전문고, 실업고)에서의 대입을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일반고에서도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진로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차이가 발생하였다. 교사와의 관계는 큰 대응관계를 찾아볼 수 없었다.

네 번째는 학생의 여가 및 문화생활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표준화된 교육커리큘럼, 입시 위주 교육목표 등의 이유로 서구 문화자본론의 적용이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었다. 본 분석결과도 한국사회 고3의 위계화 된 문화자본 지형도를 살펴볼 수 없었다. 오히려 사회경제적 상층집단일수록 여가시간이 적었으며, 여가의 양태도 휴식과 같은 학습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여가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김두환 외(2013)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교육적 현실은 문화적 폭을 담지해내는 수평적 교육이기보다는 대학입시를 위한 수직적 교육이라는 논의를 지지한다. 즉 대입이 묵시적 목표로 공인되는 한국사회에서는, 적어도 고3 시기에는 다양한 문화 활동은 그 목표에 이반되는 행위인 것이다(김경근・변수용, 2007).

마지막으로 교육 열망 및 직업포부를 고려한 wisconsin 모형의 논의를 확인하였다. 즉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희망학력, 인생관, 직업관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의 파악을 시도한 것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 열망은 사회경제적 위계와 높은 정도로 상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생관 및 직업관도 사회적 하층집단의 경우 소득과 고용안정과 같은 현실적 목표에 맞추어져 있었지만, 사회적 상층집단의 경우에는 자기실현, 적성과 소질과 같은 이상적 목표에 초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생의 교육 열망과 지향, 행위도 사회적 위계와 밀접히 상응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상 MCA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 고3의 삶의 단면을 총 5차원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

사회에서 교육계층화의 큰 전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고교유형은 높은 정도로 상응되어 있었으며, 학업적 성취, 사회자본, 문화자본, 의식차원 전반에서 사회구조적 불평등이 교육의 영역에서 높은 정도로 상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보상이 위계화 된 학벌을 위주로 배분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대입을 준비하는 고3 시기는 부모-학교-학생의 모든 자원과 전략이 누적/집중되는 시기이다. 즉 고3 시기는 세대 간 자원과 전략이 가장 명확히 보이는 시점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세대 간 자원이전과 계층구조가 고교유형을 중심으로 '구별짓기'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실천과 의식도 사회구조적 위계와 높은 정도로 상응됨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구조적 위계가 고3 시기 학생들의 삶에 어떻게 침투・발현되는지, 그러한 발현의 양태가 얼마나 상응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사회 교육계층화의 전반적 양태를 담아내려 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었다는 점과, 많은 변인들을 고려함으로써 세부적인 변수들의 특성 및 분포 등을 자세히 고찰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교육계층화의 전반적 논의를 다룸으로써 각 차원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는다. 하지만 본 연구는 변수들의 관계를 보여줌에 목적을 두는 생경한 MCA 분석을 활용함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변수들의 관계를 설명하기보다는 관계성과 상상력 그 자체의 제공에 목적을 두었음을 밝힌다. 여러 나라에서 발전해온 MCA 분석은 범주변수 및 다양한 변수들의 관계들을 축약, 시각화 해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장점이 많은 연구방법론으로, 이는 불평등 전반의 양태를 짚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적 함의가 있다. 기존 연구들이 주요 변인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검증에 목표를 두었다면, 본 연구는 한국사회 교육계층화 전반에 대해 조망을 시도한 첫 경험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곽수란(2006). 「인문계 학생의 학업성취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제16권 제2호, 1~29쪽, 한국교육사회학회.

구인회(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

김경근(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제15권 제3호, 1~27쪽, 한국교육사회학회.

김경근・변수용(2006). 「한국사회에서의 상급학교 진학 선택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제16권 제4호, 1~27쪽, 한국교육사회학회.

_____(2007). 「한국사회에서의 학업성취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제17권 제1호, 23~51쪽, 한국교육사회학회.

김경년(2011). 「고교유형 다양화를 통한 교육적 선발이 학생들의 직업포부 형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제49권 제4호, 121~145쪽, 한국교육학회.

김경희(2001). 「K-평균 군집분석을 활용한 다중대응분석의 재해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통계학 석사학위 논문.

김두환・김문조(2005). 「미시적 사회관계와 교육성취」, 한국교육고용패널 제1회 학술대회 논문집.

_____(2005). 「교육목표의 관계적 동조와 학업성취: 지위획득 연구의 새 방향」, 『교육사회학연구』, 제15권 제1호, 43~64쪽, 한국교육사회학회.

김두환(2008). 「부모와 자녀의 사회적 관계와 대학진학 포부 및 학업성취」, 『교육사회학연구』, 제18권 제4호, 29~53쪽, 한국교육사회학회.

김두환・김문조・이왕원(2013). 「학업성취 관련요인들이 융합인재교육 교과목 흥미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교육사회학회.

김문조(2008). 『한국사회의 양극화』, 집문당.

김성식(2009). 『수능성적과 대학진학에 대한 특목고의 효과 분석』, 『현안보고

OR2009-09』, 한국교육개발원.

김성호(2000). 「마케팅 연구에서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의 이용」, 『Hanyang Business Review』 12, 117~131쪽, 한양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김용순(2003). 「교육프리미엄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교육정책포럼, 2003년 21호, 6~8. 한국교육개발원.

김위정・염유식(2009). 「계급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43권 제5호.

김준엽・김경희・한송이(2013). 「고교유형에 따른 성취도 격차의 양상과 발생요인」, 『교육평가연구』, 제26권, 3호, 555~557쪽, 한국교육평가학회.

김지영(2010). 「다차원 대응분석과 응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통계학 석사학위 논문.

남기곤(2007). 「사교육비 규모의 시계열 추이분석」, 『교육재정 경제연구』, 제16권 1호, 57~79쪽,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남춘호(2003). 「교육불평등과 노동시장」, 『지역사회학』, 제4권 2호, 통권 5호, 5~43쪽, 지역사회학회.

노형진(2008). 「대응분석의 이론과 실제」, 한올 출판사.

_____(2011). 「분할표의 분석 및 대응분석」, 학현사.

민병철・박소영(2010). 「외국어 고등학교 학교효과 분석 : 성향점수 매칭모형을 활용하여」, 『한국교육』, 제37권 제1호, 147~165쪽, 한국교육개발원.

박소영・민병철(2009). 「특수목적고 진학 결정요인 분석」, 『한국교육』, 제36권 제4호, 29~48쪽, 한국교육개발원.

박현정・상경아・강주연(2008). 「사교육이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교육평가연구』, 제21권 제4호, 107~127쪽, 한국교육평가학회.

방하남・김기헌(2001). 「변화와 세습 : 한국 사회의 세대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제35권 제3호, 1~30쪽, 한국사회학회.

백병부・김경근(2007). 「학업성취와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구조적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제17권 제3호, 101~129쪽, 한국교육사회학회.

변수용・황여정・김경근(2012). 「위세 높은 대학 진학에서의 외고 효과」, 『교육사회학연구』, 제22권 제3호, 133~162쪽, 한국교육사회학회.

손준종(2004). 「교육공간으로서 강남(江南) 읽기 : 교육정책에 주는 함의」, 『교육사

회학연구』, 제14권 제3호, 107~131쪽, 한국교육사회학회.

_____(2006). 「교육양극화의 개념, 유형, 동인에 관한 탐색적 논의」, 『한국교육학연구』, 제12권 제2호.

심경섭・설동훈(2010).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직업포부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인구학』, 제33권 제2호, 33~59쪽, 한국인구학회.

이건만(2007). 「한국사회의 학벌주의와 계급갈등 : 학벌자본의 이론화를 향해」, 『교육사회학연구』, 제17권 제4호, 63~85쪽, 한국교육사회학회.

이명진(1997). 「지역주의와 정권 : 지역별 집중도와 거리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1, 1, 121~139쪽, 한국정치학회.

오정란(2007). 「한국의 학교선택,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교육사회학연구』, 제17권 제2호, 89~113쪽, 한국교육사회학회.

차종천・오병돈(2012). 「교육 열망과 학습 참여가 학업성취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공교육, 사교육,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비교분석」, 『아시아교육연구』, 제13권 제4호 통권44호, 417~441쪽,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최샛별・이명진(2012). 「음악장르, 여가활동, TV프로그램 선호분석을 통해 본 한국회의 문화 지형도」, 『한국사회학』, 제46집 제2호, 34~60쪽, 한국사회학회.

Abdi, H. & Valentin, D. (2007).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In N. Salkind (Ed.), Encyclopedia of measurement and statistics. (pp. 652~658).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Benzécri, J. P(1992). *Correspondence Analysis Handbook,* New York: Marcel Dekker.

Bourdieu, P.(1973). *Cultural reproduction and social reproduction,* In R. Brown(ed.), Knowledge, education and cultural change, London: Tavistock.

_____(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judgement of tast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_____(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Press.

_____(1996). *The state nobility: Elite schools in the field of pow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Bryson, B.(1996). "Anything but Heavy Metal: Symbolic Exclusion and Musical

Dislik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61 No.5, pp. 884~899.

Blau, P,M. & O,D. Duncan(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The Free Press.

Chan, T.W. & Goldthorpe, J.H(2007). "Social Stratification and Cultural Consumption: Music in England",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23 No.1, pp. 1~19.

Coleman, J(1966). "The concept of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Vol.38 No.1, pp. 37~77.

_____(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 95~120.

_____(1997). *Family, school, and social capital. In L. Saha(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Elsevier Science Ltd.

Erickson, B(1996). "Culture, class, and connec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102 No.1, pp. 217~251.

Jencks, C(1972). *Inequality: A reassessment of the effect of family and schooling in America,*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Jencks, C., & M. Phillips(1998). *The Black -White test score gap,*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Kim, D.H. & B. Schneider(2005). "Social capital in action: Alignment of parental support in adolescents' transition to postsecondary education", *Social Forces*, Vol.84 No.2, pp. 1181~1206.

Peterson, R.A. & A. Simkus(1992). *Cultivating differences: symbolic boundaries and the making of inequalit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ewell, W.H. & V.P. Shah(1967). "Socioeconomic status, intelligence, and the attainment of higher education". *Sociology of Education*, Vol.40 No.1, pp. 1~23.

Sewell, W.H &, A.O. Haller & A. Portes(1969). "The educational and early occupational attainment proc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4, pp. 82~92.

Sewell, W.H. & R.M. Hauser(1980). "The wisconsin longitudinal study of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aspiration and achievements", *Research in Sociology of Education and Socialization*,1, pp. 59~99.

Abstract

Multi-dimensional mapping of inequality during senior high school period through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 The maps of social hierarchy, highschool type, social capital, cultural capital and consciousness

Lee Wang Won

This research referred to the 4th-year material of the KEEP investigation to examine high school senior students' life in terms of educational inequality. In this research, I employed the MCA(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which summarizes and visualizes multiple variables centering on several axes. This is to take a multi-dimensional and detailed view on each aspect of any educational inequality in the senior high school year.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into aspects of senior high school year in terms of following 5 dimensions: type of school, socioeconomic background of family, academic performance, social capital, cultural capital and consciousness. It is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university admission has very serious social-family-personal effects in the Korean society, where social and career rewards tend to be decided by the order of university hierarchy. The empirical findings of the MCA analysis show the map which multi-dimensional inequality in Korean educational dimension are overlapped.

Key words: MCA(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Educational stratification, Educational inequality, Senior year of high school, Highschool type